

공동체 삶의 기초, 농업

강 동 진(목사, 보은 보나공동체)

밀과 쌀의 문화적 차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제외한 유라시아 대부분의 지역은 밀 아니면 쌀을 주식으로 사용한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유럽 사람들에 의해 역사가 단절되고 식민지로 약탈당하면서 정상적인 역사발전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말았다. 일단 이 주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기로 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밀과 쌀을 비교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밀은 연작할 수가 없다. 쌀은 논에서 수십 년을 혹은 수백 년을 계속해서 쌀농사를 지어도 별로 수확이 준다든가 하는 연작의 피해가 별로 없다. 쌀은 연작이 되는 식물이다. 하지만 밀은 연작이 안 된다. 그래서 밀농사를 짓는 지역을 살펴보면 밀을 심은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밀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 만약 다시 밀을 심게 되면 수확량이 70%이하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키가 발목 정도밖에 크지 않는다. 밀이든 쌀이든 농부들은 열매도 수확하지만 알곡을 수확하고 남는 벼짚은 건축 재료가 되기도 하고 가축의 사료가 되기도 하고 겨울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하는 연료가 되기도 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데 밀은 연작하게 되면 키가 크지를 않아 썰모가 없어진다.

밀과 쌀의 또 다른 차이는 밀과 쌀에 들어있는 영양소이다. 필수아미노산의 경우 어떤 것은 쌀이 밀보다 90배 혹은 120배나 많이 들어있다. 쌀이 밀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유럽 사람들은 영양가도 높고 연작해도 피해가 별로 없는 착한 쌀농사를 지어 밥을 해먹지 않고 왜 밀농사를 지어 빵을 만들어 먹게 되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쌀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땅에서 더 잘 자란다. 물론 밭벼는 밭에서도 자란다. 하지만 수확량은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쌀은 물이 충분한 논에서 잘 자란다. 그런데 유럽지역은 대부분 석회석 지역인지라 물을 담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출수시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기의 기온이 28-32도, 대기 중의 습도가 80%이상의 고온다습한 조건이어야 쌀은 더 잘 자라게 된다. 이 기간은 대개 6월이다. 그런데 유럽의 6월은 고온하지만 다습하지 않다. 건기인 것이다. 그 결과 유럽 대부분의 지역은 쌀을 경작할 수 없었다.

자, 그러면 밀을 농사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밀은 연작이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다. 그러다 보니 밀농사 지역의 농부들은 자기가 경작하는 대지를 최소한 두 개로 나누거나 중세 기독교문화가 뿌리를 내렸을 때는 장원제도라고 해서 7등분하여 돌려짓기를 하였다. 밀을 농사지은 땅은 그 다음해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밀지역의 농부들은 한두 가지 작물을 넓은 땅에 농사짓는 흔히 말하는 플랜테이션농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유럽의 농부들은 아무리 농부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을 모두 자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이 농사지은 작물을 수레에 가득 채우고 길을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농사지은 다른 지역의 사람을 찾아가 바꿔먹기를 해야 했다. 그래서 밀농사 지역은 일찍부터 길을 만들었다. 그들의 문화의 시작은 길로부터 시작한다. 길을 따라 찾아가서 물물교역을 해야 하기에 언어는 목적어 중심의 매우 경제적인 언어로 발전한다. 처음에는 평화롭게 물물교역을 하다가 자신들보다 힘이 없고 약하다는 판단이 서면 침략을 자행하게 된다. 약탈과 침략의

문화가 길을 따라 자리 잡는다. 이리다보니 밀문화 지역의 성은 쌀문화 지역과 다르다. 석회석 지역인지라 나무가 잘 자랐다. 그래서 그들은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수직으로 높이 쌓았다. 하지만 쌀 문화 지역의 성들은 한국을 보나 중국이나 인도차이나반도의 성들을 보나 거의 예외 없이 옆으로 방을 이어서 짓는 방식이다.

이런 침략과 약탈의 도구인 길을 따라 유럽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땅 끝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우월한 의식주문화를 이식시킨다. 유럽의 선교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선교지로 나가 자신들만의 컴파운드를 세우고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모두가 그런 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식민지 해방과 동시에 컴파운드는 파괴되고 교회는 불태워졌다.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학살의 대상이 되거나 백인이 차지하고 있던 수직적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군림하였다. 밀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지역은 길의 문화였고 이 길을 따라 점령과 약탈을 감행하는 문화가 발전해온 것이다.

하지만 쌀농사를 짓는 지역은 다르다. 쌀이 자라는 곳은 여름기온이 고온다습하여 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잡곡들과 부식들 그리고 양념류까지 모두가 자라면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진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다보니 길을 넓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작로라는 이름의 넓은 길은 일제 강점기에야 비로소 만들어졌다. 우리는 굽이굽이 산자락을 따라 돌아가는 황톳길이 우리나라의 길이었고 소달구지도 쉽게 다니지 못해 지계를 만들어 등에 짐을 지고 운반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을에서는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이동이 용이하지 않아 씨족사회를 형성하고 오래도록 같이 모여 살게 된다. 이리다보니 말을 할 때 직설적으로 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기에 말을 할 때는 구령이 담 넘어 가듯이 은유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말을 했다.

이처럼 쌀문화 지역과 밀문화 지역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가르치시는 분이냐 농업정책을 펴시는 분들은 대부

분 일본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다. 일본은 탈(脫)아시아를 꿈꾸며 일찍부터 유럽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아시아적 가치를 가소롭게 여기던 사람들이다. 미국 역시 유럽 사람들에 의해 식민지를 겪으면서 유럽식 농업을 지속해온 나라다. 이러다보니 농업을 가르치는 분이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자급농업, 마을문화라는 쌀 문화 지역의 가치와 특징을 가볍게 여기고 단일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유럽식, 밀농사지역의 농업방식을 한국에 이식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기업농업, 기계농업, 전업농 등등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과 정책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밀문화의 농업적 가치를 이 땅에 접목시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꼴이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쌀로 밥을 지어 먹도록 만드신 민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단일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사대주의적 농업발상을 포기해야 한다. 대신 쌀 문화지역의 농업적 가치를 묵상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길을 연구하여야 한다.

쌀은 마을을 만들었고 마을은 말 그대로 공동체였다. 두레라고 해서 농사도 같이 하고 애경사도 늘 온 마을이 함께 하는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가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방식이었다.

한국농촌의 위기는 불균등성장정책을 펴면서 수많은 농민들을 자신의 문전옥답(門前沃畝)을 버리고 도시의 빈민으로 몰아낸 것이 그 근본원인이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해체였고 밀농사문화 곧 소수의 농부가 돈이 될 만한 단일작목을 넓게 농사짓는 것을 가난한 한국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어리석음이었다.

한국의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급영농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을 심어서 돈을 번다는 말은 사기꾼의 달콤한 속삭임이요 사단의 소리인줄 알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한 가정이 힘을 모아 쌀농사를 하고 밭농사를 짓고 그 밭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심는데 부식과

양념을 자급하는 그런 농사여야 한다. 그리고 논과 밭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수의 가축을 길러 가축의 퇴구비로 논과 밭을 기름지게 하고 논과 밭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가축을 기르는 순환형 농업이 우리 농업의 본래의 얼굴인 것이다.

누가 할 것인가?

출애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시골에서 농사짓는 내가 보기에 출애굽은 하나님의 귀농운동이었다. 원래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 먹고살기 어려워지자 기근을 피해 당시 최고의 문명도시였던 애굽으로 내려간다. 처음 애굽의 생활, 곧 도시생활은 그들에게 장밋빛이었다. 먹고살 수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도시는 그들은 잠식해버리고 그들은 도시의 노예들로 전락해버린다. 오로지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불쌍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합비루라고 일컫던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과 만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물질적인 부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화로운 삶의 열매와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결코 부요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게 하시며 훈련시키셨다.

최근 한국에서는 귀농운동이 한참 일어나는 중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시골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도회지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귀농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몇 가정 모임을 만들고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고토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해체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농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일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는 무엇인가? 농업의 원형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16년 전에 이곳 보은으로 내려와서 난생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한 주제이다. 물론 아직 결론을 얻은 것은 아니다. 평생을 구도자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몇 가지 정리된 생각을 여기서 말하고 싶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곳이 에덴이었다. 에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동산에는 강이 흐르는 곳이었다. 에덴은 아름다운 정원이었고 그 정원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이 아담의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을 가꾸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다. 첫 농사는 에덴이라는 정원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땀 흘리면 반드시 먹을 것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비록 타락한 인간이라도 먹을 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농사의 원형은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한 이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땅일지라도 아담이 에덴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드는 에덴을 통해 먹을 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쌀 농사지역에서 다양한 작물을 심어서 자급하는 농업형태를 상상하게 한다. 다양한 잡곡을 심어서 식량을 자급하고 밭에는 다양한

야채들과 양념류와 유실수를 심어 자급하는 아시아의 작은 시골마을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돈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오로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착각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농사만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셨다(눅 12:15) 농업을 생각할 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농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작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식물이 자라는 정원은 우리에게 아름다움만 주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다양한 동물들에게 식량과 안식처를 제공한다.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신 숲을 지금의 인류는 무자비하게 없애고 있다. 숲이 있어야 할 자리에 콘크리트로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집을 짓고 인간만을 위한 도로를 건설한다. 로마제국이 강력한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름답고 울창했던 유럽의 숲을 불태우고 라티퐁디움(latifundium)이라고 하는 집약적인 대토지 농장을 만들어 단일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숲도 사라지고 작은 땅을 일구어 자급하며 살아가던 농민들도 사라졌다. 힘 있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해버렸다.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게르만족의 침입이었고 서로마는 망하고 말았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면서 대농장들은 모두 붕괴되고 말았고 마을도 사라지고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버렸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다시 숲이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의 최첨단 문명으로 무장한 인류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져버린 소비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문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민족은 어리석은 결과를 자초할 뿐이다.

미래를 여는 농업공동체

농업은 에덴을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겨레가 수천 년을 이 땅에

살아오면서 체득한 원래 농업의 방식과 연결된다. 무한한 인간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넓은 땅에 단일작목을 심는 농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교회는 농부들에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일만 악의 근원인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다양한 작물들을 밭에 심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다양한 피조물들과 함께 사는 삶이 주는 행복을 맛보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삶은 자본이 중심이 되어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파괴적인 인류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삶의 형태가 될 것이다. 農